

1. 문제유형 파악하기		
2016 모의 인문사회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다)에 근거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방법론 변천'의 배경을 추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제시문 (사)에 나타난 윤 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비판하시오. [20점, 400~420자]</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요약 후 평가’ 유형
2016 모의 경제경영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다)에 근거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방법론 변천'의 배경을 추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수리논술</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2015 인문사회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쪼갬)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p>	<p>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요약 후 평가’ 유형

2015 경제경영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수리논술</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2015 모의 인문사회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십시오.</p> <p>[20점, 400~420자]</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요약 후 평가’ 유형
2015 모의 경제경영		
[문제 1]	[문제 2]	[문제 3]
<p>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십시오.</p> <p>[40점, 550~570자]</p>	<p>수리논술</p>
‘완성된 글’ 유형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2. '완성된 글' 유형 공략 [중앙대 모범답안을 토대로]	
중앙대는 [문제 1]에서 하나의 키워드와 네 개의 제시문을 이용하여 각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드러내며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한다. [40점 - 550~570자]	
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6문장 - 글자 수에 주의할 것.]	
'A'는 문제의 핵심어임을 유의할 것. 글자수를 고려할 때 제시문이라는 단어는 넣는 것이 좋음.	
①	제시문 (가)~(라)는 'A'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제시문 (가)는 'B'라고 말한다.
③	제시문 (나)는 'C'라고 말한다.
④	제시문 (다)는 'D'라고 말한다.
⑤	제시문 (라)는 'E'라고 말한다.
⑥	요컨대, 'A'는 'B', 'C', 'D', 'E'다. (추상화, 일반화가 필요)
※ 햄버거를 통해 알아본 중앙대 1번 문제 전형적 답안 구조	
①	제시문 (가)~(라)는 햄버거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제시문 (가)는 새우버거가 햄버거 중 으뜸이며, 타르타르소스와 함께 먹는 새우버거는 해산물 본연의 맛을 극대화하여 바다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③	제시문 (나)는 불고기버거가 햄버거 중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한국사람이라면 어렸을 때 누구나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서 불고기버거를 먹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이다.
④	제시문 (다)는 상하이스파이스치킨버거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받드는 치킨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 맛을 내는 소스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⑤	제시문 (라)는 빅맥버거가 가장 대중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햄버거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는 빅맥버거를 시키면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 패티 2장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⑥	요컨대, 햄버거는 바다를 느끼게 해주며, 추억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입맛을 대변하기도 하며, 대중성을 지니기도 한다.
2) TIP	
①	어차피 한 문장으로 각 제시문을 요약할 것이므로 지엽적인 부분에 주목하지 말고 가급적 주제가 나오는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을 읽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자.
②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각 제시문들의 핵심내용을 다시 언급해주며 결론을 내리되 각 제시문들의 핵심내용을 추상화하여 정리하자.
3) 중앙대 모범답안과의 비교	
①	제시문 (가)~(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③	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④	<p>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p>
⑤	<p>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p>
⑥	<p>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p>

4) 실전연습1 - 2016 모의 인문사회/경제경영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p>인간의 감각적 경험은 지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순수한 감각적 경험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 한 권 읽지 못한 문맹자라 해도 그 경험적 영역이 순수하게 남아 있지 않고,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 경험을 규정하게 된다. 감각적 경험이 지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그 감각적 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p> <p>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구경했다고 하자. 그는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했으며, 그것을 보면서 중국인들 특유의 큰 스케일과 중국 문명의 위대함에 새삼 놀랐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떤 역사책을 통해 만리장성이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을 죽여가며 만들어진 슬픈 역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지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 역사 인식은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만리장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는 이제 만리장성을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야만의 산물에 가깝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경험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새롭게 규정된다.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면 과거의 경험은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는 순수한 의미의 감각적 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적 경험이 이를 보완하여 사람들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나)	<p>라다크에 오기 전 나는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타나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거나 길모퉁이 가게 대신 현대식 대형 상점이 들어서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대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숨 가쁘게 계속되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다크는 내게 미래를 향하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커다란 힘과 희망을 주었다.</p> <p>라다크에 머무는 동안 나는 기존의 것 이외에도 더욱 바람직한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편 그동안 나 자신이 속해 있던 문화를 외부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라다크 사회는 그 근본부터 다른 원칙에 기초를 둔 곳이었고, 그곳에서 나는 현대화된 외부 세계가 그들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목격했다.</p> <p>라다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파괴 지향의 변화들에 대해 그간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혼동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내가 보아 왔던 그 부정적 현상들이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자연적 혹은 진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산업 문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나는 그저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기적</p>

	<p>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서로 돕는 사회라는 것은 유토피아적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p> <p>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비교적 여러 나라를 다녀 보기는 했지만 그 대부분이 문명화된 선진국들이었고, 여행의 범위를 넓혀 저개발 지역으로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면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p> <p>애덤 스미스에서 프로이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출신의 주류 사상가들은 자신들이 속한 서구와 산업 사회에서의 경험을 보편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들은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자신들이 설명하는 특성들은 산업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표상이라고 전제한다. 서구의 문화가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세계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서구 문화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이런 경향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나)는 화자의 라다크에서의 통찰을 소개하며, 다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 한 사회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p>
<p>(다)</p>	<p>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어느 날 공자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연은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p> <p>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박을 내다봤는데 마침 안연이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안연은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 수저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연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안연이 밥상을 공자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았다.</p> <p>공자는 조금 전에 안연이 밥을 집어 먹었던 일을 못 본 체하고 누웠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연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네. 밥이 깨끗하다면, 그 어른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싶네.”</p> <p>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연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누우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연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다. “선생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p> <p>공자는 잠시 안연을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자네들은 꼭 기억해 두길 바라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다)는 공자가 안연을 의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눈과 머리에 대한 맹신을 반성하는 공자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준다.</p>
<p>(라)</p>	<p>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를 걷거나 자동차를 타고 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길 위의 아스팔트가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번들거리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 예시) 그러나 실제로는 물이 없고, 햇볕에 달구어진 아스팔트가 열기를 내뿜고 있을 뿐이다. 아스팔트에 나타난 신기루 현상이다.</p> <p>사막을 횡단하는 이에게는 물이 가장 그림다. 물웅덩이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눈 앞에 문득 저 멀리 물이 출렁이는 호수가 보인다. 그는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출렁이는 호수는 이내 사라지고, 뜨거운 모래 벌판만 계속될 뿐이다. 호수는 신기루였던 것이다. 뜨거운 모래 벌판에 나타난 신기루는 물을 간절히 바라던 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이었을까?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는 목마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 낸 헛것이 아니다. 그의 눈에는 실제로 물이 보였다. 그러면 그 물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사람의 눈은 빛 형태의 신호를 받아들여 밝음과 어둠, 그리고 물체의 색깔을 감지한다. 그러나 밝음과 어둠, 그리고 색깔을 이용하여 그것이 어떤 물체인지를 판별하는 일은 뇌가 한다. 뇌에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얻은 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뇌는 눈으로 받아들인 신호와 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비교해서 물체의 종류, 온도, 위험성 등을 판단한다.</p> <p>뇌에는 빛이 물의 표면에서 반사된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하늘의 색이 비쳐서 푸르거나 흰색으로 보인다는 정보도 저장되어 있다. 눈은 아스팔트 모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들인다. 이 빛은 모래나 아스팔트의 뜨거운 공기에 의해 전반사된 빛이어서 물 위에서 반사된 빛과 같은 하늘색을 띠고 있다.</p> <p>그러나 뇌는 아직 모래나 아스팔트에 의해 달구어진 공기가 전반사를 일으켜 물 표면에서처럼 빛을 발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뇌는 눈이 받아들인 신호를 바탕으로 아스팔트나 모래 위에 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뜨거운 아스팔트나 모래도 물 표면에서 반사된 빛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신기루가 보이는 이유는 뇌에 저장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다면 신기루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라)는 신기루 현상에 대한 정보가 뇌에 저장되어 있으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정보를 신기루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개별적 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p>
<p>답안작성 [1문단, 6문장]</p>	
<p>①</p>	<p>제시문 (가)~(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p>
<p>②</p>	<p>제시문 (가)는 순수한 의미의 감각적 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적 경험이 감각적 경험을 보완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p>

③	제시문 (나)는 화자의 라다크에서의 통찰을 소개하며, 다른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 한 사회의 지배적 통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제시문 (다)는 공자가 안연을 의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눈과 머리에 대한 맹신을 반성하는 공자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준다.
⑤	제시문 (라)는 신기루 현상에 대한 정보가 뇌에 저장되어 있으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정보를 신기루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개별적 경험을 통한 지식의 축적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⑥	요컨대, 대상에 대한 '인식'은 감각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근원적 한계를 지니지만 지적 경험, 다른 환경에서의 구체적 경험, 개별적 경험의 축적에 의해 보완된다.

5) 실전연습2 - 2015 인문사회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나누다(쪼개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나눔(쪼갬)’의 방식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는 돈을 처리하는 기능과 음료수를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선택된 음료수를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런 기능들이 각각 모듈화되어 자판기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모듈이란 문제를 기능별로 분할한 논리적인 일부분을 말한다.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단순한 모듈로 나누어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천 원짜리 신권 지폐가 발행되었는데 기존의 지폐보다 크기가 작아져서 기존의 자판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자판기가 모듈화되어 있지 않고 모듈 기능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판기 전체를 다시 설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자판기를 모듈화해서 돈을 처리하는 기능을 함수처럼 만들어 주면 이 부분만 개선하여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관리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된다.
한 문장 요약	(가)는 자판기의 사례처럼 기능을 모듈로 분할(나눔의 방식)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비용 절감, 손쉬운 관리 등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나눔의 효과)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
(나)	로마의 귀족은 평민보다 앞서서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사재로 전쟁세를 내어 국가를 수호하였다. (일반적 예시)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가 전투 헬기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국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나 공직자는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인(公人)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신의 지위를 성취할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지도층에게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위해 그들의 천부적 자질을 이용하고 사회적 여건을 활용하라고 요구한다. 사회 구성원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는 개인에게 배분된 자연적 능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배당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나 관리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기술과

	<p>지식 역시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되어 온 역사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당대 인물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기술과 지식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빌려 온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에 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의감, 즉 공 개념적 사고에 기인한다.</p>
한 문장 요약	<p>(나)에서는 우연에 의해 부여 받은 선천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재분배(나눔의 방식)하는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제시한다.</p>
(다)	<p>정보 통신 기술 사회의 범주는 일반 범주와 달리 대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 통신 기술 범죄의 여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 사회는 빠른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모습도 같이 갖고 있다. 2009년 7월 '디도스(DDoS)'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일반적 예시?] 이로 인해 정부나 은행의 주요 사이트들이 마비되었고, 미국 국방성의 전산망도 외부와 차단되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작동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분산시키고, 해당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패킷(데이터)을 동시에 전송시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 또는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이다. 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이러한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례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급 되는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특정한 정부 기관이나 보안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섰으며, 개별 컴퓨터 이용자들이 평소에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계적인 위기를 일으키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p>
한 문장 요약	<p>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나누어 일제히 공격하는 (다)의 디도스 사례는, 분산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배가시켜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 준다.</p>
(라)	<p>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물 종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상의</p>

	<p>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지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p>
<p>한 문장 요약</p>	<p>(라)는 생물 계통수의 사례를 통해,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준다.</p>
<p>답안작성 [1문단, 6문장]</p>	
<p>①</p>	<p>(가), (나), (다), (라)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그 효과를 보여 준다</p>
<p>②</p>	<p>(가)는 자판기의 사례처럼 기능을 모듈로 분할(나눔의 방식)하는 방식을 통해 부분의 대체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비용 절감, 손쉬운 관리 등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나눔의 효과)하는 효과를 보여 준다.</p>
<p>③</p>	<p>(나)에서는 우연에 의해 부여 받은 선천적 재능이나 물려받은 지위 등을 사회적으로 재분배(나눔의 방식)하는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제시한다.</p>
<p>④</p>	<p>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나누어 일제히 공격하는 (다)의 디도스 사례는, 분산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배가시켜 관리와 통제를 어렵게 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 준다.</p>
<p>⑤</p>	<p>(라)는 생물 계통수의 사례를 통해,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묶는 분류의 방식(나눔의 방식)이 대상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개체들 간의 숨겨진 상호 관계를 드러낼 수 있음(나눔의 효과)을 보여준다.</p>
<p>⑥</p>	<p>이와 같이 나눔은 분할, 분배, 분산, 분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제성, 사회정의 구현, 영향력의 확대, 체계화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p>

6) 실전연습3 - 2015 경제경영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선택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p>조선 후기 문인 화가인 공재 윤두서의 <윤두서상>은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라는 정통 초상화론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안면의 윤곽선과 수염의 필선은 정교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그런가 하면 정면을 응시하는 눈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고, 그 뒤에는 선비다운 기개가 충만해 있다. 자화상의 화면 구도는 이채롭다. 보통의 초상화가 전신이나 상반신을 그리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얼굴만 강조하여 그린 것이다. 배경은 그냥 여백인 채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화면에 빈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자람을 뜻하지는 않는다. 화면의 빈 곳은 빈 곳이 아니라 무한한 생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은 놀랍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양 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바람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고,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라져 나갔다. 대체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그림은 조선 시대 유교 윤리나 보편적 미감에서 벗어나 있다. 사대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를 떼어 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두서는 목과 상체와 귀, 그리고 탕건을 온전히 그리지 않고 얼굴만을 선택해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한 미학적 실험을 감행했다. 말하자면 윤두서는 기성의 회화 전통과 차별 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자화상 가운데 윤두서의 자화상이 표현 형식이나 기법에서 특이한 양식을 보이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는 생략과 여백을 통해 유교적 관념이나 보편적 미학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 윤두서의 초상화를 소개하며 지배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의 실험적 욕망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나)	<p>사람은 숙명적으로 부분적인 지식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여 이를 신경 계통에 전달하는데, 이때 이들 감각을 모두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한 후 추상화하여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의 취사선택은 자동적으로 완전하게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경계 하나하나의 추상 작용입니다. 듣는 이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소리는 음파가 되어 귀에까지 옵니다. 눈으로 듣고자 하여 매우 열심히 말하는 이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으면, 말하는 이에게서 오는 자극은 광파가 되어 눈까지 옵니다. 그러나 광파도 음파도 거기서 멈추고, 그 후에는 신경계를 통하여 대뇌에 전달되어 비로소 우리들은 본 것, 본 일, 들은 것, 들은 일을 의식하는 것, 곧 아는 것입니다. 신경계에서 추상하는 일이 끝난 후에 대뇌에서 비로소 의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화 작업을</p>

	<p>통해서 대뇌의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p> <p>음파는 결코 귀에서 그대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귀 그 자리에서 멈추고는 자극이 되어 신경계에 전달되어 대뇌로 갑니다만, 그 사이에 추상 작용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추상 작용이 행해진 다음에 소리로서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였을 때는 이미 자신의 여과기(濾過器, filter)에 걸러지고 만 것이어서, 그 물체의 소리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여과기를 통하여 인식된 소리이기 때문에 벌써 자기류(自己流)가 되고 만 것이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듣는 이는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폰드레가 박사님이 강의하는 교실에서 환등기가 교수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디다.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뒤의 하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놓고 교수님이 환등기를 비추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디다. 교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환등기가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환등기라는 물체의 자극을 광파에 의하여 받게 되면 곧 바로 뒤의 하얀 벽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look'이 아니고 'look for'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들려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나)는 우리는 감각기관에 의해 추상화되고 신경계에 의해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무의식이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p>
<p>(다)</p>	<p>총통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p> <p>“젊은 친구, 문명은 고귀함이나 비장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세. 그러한 것은 정치적 비능률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야. 우리처럼 적절히 조직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이 될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걸세.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여건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저항해야 할 유혹이 있거나 쟁취하거나 방어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고귀함과 비장함도 어떤 의미를 가질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반사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 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소마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리고 우리는 또 완전한 건강을 위해 V.P.S 요법을 강제</p>

	<p>로 시행하고 있어.”</p> <p>“V.P.S라고요”</p> <p>“걱정 대용 약(Violent Passion Surrogate)이란 뜻이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로서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p> <p>“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p> <p>“우리는 그렇지 않아.”</p> <p>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p> <p>“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p> <p>“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그래.”</p> <p>“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p> <p>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p> <p>“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p> <p>“그렇다면 말한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로 요구하겠지”</p> <p>긴 침묵이 흘렀다.</p> <p>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p> <p>“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p> <p>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슬렀다.</p> <p>“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다)는 인간의 걱정을 제어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야만인’을 소개하며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이 인간다움을 구성하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함을 암시한다.</p>
<p>(라)</p>	<p>스키마(schema)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예컨대 ‘삼각형’이란 스키마는 세상의 수많은 세모꼴의 형태가 종합된 하나의 규칙이며, ‘개’라는 스키마는 여러 종의 네 발 달린 개라는 동물을 상상할 때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형태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형태 심리학은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장하는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특성은 부분들의 특성의 총합’이라는 명제에 반발하여, 사물이나 정신의 모양 또는 형태 등 통일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태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지향하려는 역동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역동적 성향이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보편화와 특수화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형태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중 해석이 가능한 그림을 보여 주고 얼마 후 이 그림을 회상하도록 하였더니, 대부분은 그림에 대해 자신이 처음에 내렸던 판단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변형시켰다고 하였</p>

	<p>다. 즉 그림을 ‘다리 [橋]’로 지각한 사람이 이 그림을 회상할 때 보다 ‘더 다리답게’ 재생하고, ‘성곽’으로 지각한 사람은 보다 ‘더 성곽답게’ 재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스키마가 작용하여, 원래의 시각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기억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p> <p>스키마 이론은 이후 사회 심리학자 버틀렛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기억과 이에 미치는 과거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인들에게 낯선 북미 인디언 설화, <유령들의 전쟁>이라는 글을 영국인 피험자들에게 읽힌 뒤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회상시켰다. 그 결과, 원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회상되었고, 선택된 세부 사항들은 회상자의 흥미에 따라 변형되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한 이야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더욱 정교화 되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게 첨가되기도 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총체인 ‘스키마’를 소개하며 인간은 자신의 주변의 일들을 자신의 경험에 일체화시키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p>
<p>답안작성 [1문단, 6문장]</p>	
<p>①</p>	<p>제시문 (가)~(라)는 ‘선택에 대한 동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p>
<p>②</p>	<p>제시문 (가)는 생략과 여백을 통해 유교적 관념이나 보편적 미학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 윤두서의 초상화를 소개하며 지배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인의 실험적 욕망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p>
<p>③</p>	<p>제시문 (나)는 우리는 감각기관에 의해 추상화되고 신경계에 의해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무의식이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p>
<p>④</p>	<p>제시문 (다)는 인간의 격정을 제어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야만인’을 소개하며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이 인간다움을 구성하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함을 암시한다.</p>
<p>⑤</p>	<p>제시문 (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총체인 ‘스키마’를 소개하며 인간은 자신의 주변의 일들을 자신의 경험에 일체화시키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p>
<p>⑥</p>	<p>요컨대, 인간은 관습에의 저항을 통해 실험정신을 추구하거나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고 무의식 혹은 경험에 영향을 받아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p>

7) 실전연습4 - 2015 모의 인문사회/경제경영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기억의 역할'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p>천사가 그리워하면서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죽는 일, 곧 유한성의 경험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예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한성의 존재이면서 유한성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기억과 상상을 용접한다. 과거와 미래를 접목하는 동물계 유일의 시간 형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p> <p>그런데 인간이 천사 앞에 내놓을 위대한 자랑거리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순간성의 조건과 유한성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남미 작가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나이 팔십을 넘기면서 쓴 시에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으로 시작되는 시다. 그는 자신의 한 생이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다음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면 그 새로운 생을 어떻게 달리 살아 볼 것인가. 다음 생에 태어나 내가 다시 산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 / 완벽해지려고 버둥거리지 않으리."를 통해 생의 순간적 단회성을 그 단회성을 넘어서는 연속의 상상과 접합하고 이미 한 생의 끝자락에 선 자의 기억은 지나간 생에 대한 성찰 (실수하지 않으려고 왜 그토록 버둥거렸던가) 위에서 다른 삶의 방식(더 많이 실수하리)을 제시한다.</p> <p>재탄생의 상상력은, 물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상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상상력이 과거의 기억, 혹은 지나간 삶에 대한 성찰과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기억과 상상의 이런 접합은 인간이 처한 유한한 조건으로부터 나오고, 그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 게다가, 그 연속의 상상력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유한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완벽 추구의 불가능성)한다. 천사에게라면 이런 성찰과 상상은 필요하지 않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나)	<p>웬지 나는 선생님의 그런 세심한 안배에도 끼지 못하고 늘 가장자리에 처져 있었다. 가장자리에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였고 선생님이 아무리 공평하려고 노력해도 선생님 손이나 치맛자락을 잡을 수 있는 아이는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런 애들은 대개 예쁘고 똑똑하고 잘 까불었다. 시골이나 현저동에서 사귀 동무들하고는 다른 진짜 서울 아이들이었다.</p> <p>나는 중심부의 그런 애들을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릴 정도로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지만 닳을 자신은 없었다. 사람에게겐 누구나 죽었다 살아나도 흉내 못 낼 것 같은 게 있는 법인데 나에겐 그게 집단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통학 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밀어 넣을 생각만 했지 같은 또래를 사귀 수 없는 게 얼마나 큰 불행감이 된다는 걸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외로울 때마다 동무보다는 시</p>

	<p>골의 뒷동산을 더 많이 그리워했다. 오래 가뭄이 든 것처럼 생기 없는 나무가 듬성듬성 있을 뿐 맨땅을 드러낸 산이 너무나 이상했다.</p> <p>서울 아이들이 알기나 할까, 짝 깔린 달개비꽃의 남색이 얼마나 영롱하다는 걸. 그리고 달개비 이파리엔 얼마나 고운 소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달개비 이파리의 도톰하고 반질반질한 잎살을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내면 노방보다도 얇고 섬세한 잎맥만 남았다. 그 잎맥을 입술에서 떨게 하면 소리가 나는데 나는 겨우 소리만 냈지만, 구슬픈 곡조를 붙일 줄 아는 애도 있었다.</p> <p>나는 숨넘어가는 늙은이처럼 험벗고 정기 없는 산을 혼자서 매일 넘는 메마른 고독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추억을 만들고, 서울 아이들을 경멸할 구실을 찾았다. 사직 공원에 벚꽃이 지고 나면 이윽고 온 산에 비릿한 젖내를 풍기며 아카시아꽃이 피어났다. 아카시아꽃이 만개하자 사내아이들이 산에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질하듯 모질게 탐스러운 가장귀를 꺾어서 꽃을 따 먹었다. 아카시아꽃도 처음 보는 꽃이려니와 서울 아이들도 자연에서 곧장 먹을 걸 취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꽃을 통해서였다. 잘 먹는 아이는 송이째 들고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 먹듯이 차례차례 맛있게 먹어 들어갔다. 나도 누가 볼세라 몰래 그 꽃을 한 송이 먹어 보았더니 비릿하고 들척지근했다. 그러고는 헛구역질이 났다. 무언가로 입가심을 해야 들뜬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p> <p>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걸쭉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p> <p>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헛갈리고 있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p>
<p>(다)</p>	<p>후천성 면역에서는 림프구의 수용체를 통해 병원균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다. 후천성 면역에 관계되는 림프구로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다. 림프구는 다른 혈구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골수에서 나와 심장 윗부분의 흉강에 있는 흉선으로 이동하는 림프구는 T세포로 발달한다. 반면 골수에 남아서 계속 성숙하는 림프구는 B세포가 된다. T세포와 B세포는 식균 작용이나 항체 생성과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p> <p>쥐에 항원 X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고, 4주 뒤 그 쥐에 다시 항원 X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항체 X의 농도를 조사하였</p>

	<p>다. 그 결과 항원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1차 면역 반응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항원이 들어 왔을 때 기억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차 면역 반응 동안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는 기억 B세포로 분화되어 항원이 모두 제거된 뒤에도 체내에 오랫동안 남는다.</p> <p>동일한 항원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기억 보조 T세포의 작용으로 기억 B세포가 다시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기억 B세포는 신속하게 형질 세포로 분화되어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항원이 2차, 3차 침입하면 처음보다 항체의 생성 속도가 훨씬 빠르며, 항체 생성량 또한 훨씬 많다. 대부분의 감염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방어가 일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번 걸린 병에 두 번 걸리지 않는 것도 면역계가 기억하여 신속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역 기억 능력 때문에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p>
<p>한 문장 요약</p>	<p>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p>
<p>(라)</p>	<p>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p> <p>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p> <p>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p> <p>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p>

	<p>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 난다.</p> <p>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 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실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 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p>
답안작성 [1문단, 6문장]	
①	제시문 (가)~(라)는 기억이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제시문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성찰과 결합하여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토대이자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③	제시문 (나)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화자를 타 집단과 구분 짓는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화자가 타향살이에서 겪는 소외, 열등감, 고독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④	한편, 제시문 (다)는 면역계가 과거에 경험한 항원을 기억해 두었다가 동일 항원이 침입했을 때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후천성 면역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유사한 환경에 직면했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⑤	제시문 (라)에서는, 특정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되거나 관리된 기억이 국민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이라는 대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는 매개로 작동한다.
⑥	요컨대 기억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거나 정서적 위안을 주기도 하고 미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통합의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8) 실전연습5 - 2014 인문계열 II - 1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어부는 낚시를 할 수 있었고, 어부가 낚시를 했기 때문에 병든 딸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고, 딸이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선 가시가 발라져 나왔고, 생선 가시가 발라졌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날 생선 가시를 먹을 수 있었고, 고양이가 맛난 생선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발을 누비며 똥을 쌌고, 똥을 쌌기 때문에 땅이 오랜만에 거름을 받을 수 있었고, 거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땅이 되었고, 건강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지렁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고,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았기 때문에 엄마 새는 지렁이를 먹을 수 있었고, 엄마 새가 지렁이를 먹었기 때문에 새알을 낳을 수 있었고, 새알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쁜 아기 새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기 새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저렇게 멋진 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한 문장 요약	(가)는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인 특징을 갖는다.
(나)	우룩은 이사부의 숙사를 향해 다리를 절며 걸었다. 신발이 헤어져서 발가락에 피가 흘렀다. 금*을 멘 니문이 우룩을 부축했다. 성문에서부터 무장한 위병 두 명이 붙었다. 목욕을 마친 이사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마루로 나왔다. “얼마 전에 서라벌로부터 통지가 있었다. 네가 가야의 악사 우룩이냐?” “그러하오.” (중략) 이사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부는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그렇겠구나. 세상에, 온당하기란 쉽지가 않구나. 내, 풍편에 들었다. 너의 소리가 그리도 절묘하냐?” “나의 소리가 아니라, 본래 스스로 흘러가는 소리요.” “소리는 주인이 없는 것이냐?” “소리는 들리는 동안만의 소리고 울리는 동안만의 소리니 아마도 그러할 것이오.” “너희 나라 대장장이 야로를 아느냐?” “가야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소.” “그 늙은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병장기**는 주인이 따로 없어서 쥐는 자마다 주인이라 하였다. 소리는 병장기와 같은 것이냐” “소리는 없는 세상을 열어 내는 것인데, 그 세상은 본래 있는 세상인 것이오. 병장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병부령께서 더 잘 아시리이다.” “그러니 아마도 소리와 병장기는 같은 것인 모양이로구나.” * 금 : 가야금 ** 병장기 : 무기

한 문장 요약	(나)에서는 이사부와 우륵이 소리와 병장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
(다)	두 소수(素數) 1997과 2011의 곱이 4015967임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거꾸로 4015967을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RSA 암호 체계인데, 두 소수를 비밀 열쇠로 하고 그 두 소수의 곱을 공개 열쇠로 사용한다. 따라서 암호 해독은 비밀 열쇠와 공개 열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암호 체계의 생명은 보안인데, RSA 암호 체계에서 두 비밀 열쇠가 400자리 소수인 경우, 그 공개 열쇠를 현재의 컴퓨터 기술과 계산 방법으로 해독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 문장 요약	(다)에서는 암호 체계 내에서 임의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두 소수가 합성수를 고리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라)	<p>그 남자의 방에는 의자 두 개와 책상, 양탄자, 침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명종 시계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사진첩이 있다. 벽에는 거울 하나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이웃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건 언제나 똑같았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러했다.</p> <p>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러고는 양손을 힘껏 쥐고 쳐들었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한 번,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내리쳤고, 그런 다음엔 책상 위를 북 치듯 두들겨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p> <p>“달라져야 해, 달라져야 한다고!”</p> <p>그러자 시계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양손이 아파 오기 시작했고 목이 쉬어 버렸다. 시계 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p> <p>“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p> <p>“이제 달라질 거야.”</p> <p>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p> <p>“피곤한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p> <p>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이제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를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책상은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무엇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p>

	<p>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p> <p>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는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남자는 이 일에 재미가 들어 온종일 연습해서 새 단어들을 암기했다. 이제 모든 것의 이름이 달라졌다. 나이 많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안에 가득 적어 넣었다. 그 뒤로 남자는 모든 사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익혀 가면서 차츰 원래의 명칭을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다.</p>
<p>한 문장 요약</p>	<p>(라)에서는 남자가 명명 행위를 통해 실내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규약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p>
<p>답안작성 [1문단, 6문장]</p>	
<p>①</p>	<p>제시문 (가), (나), (다), (라)는 현상과 현상,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이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 맺음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p>
<p>②</p>	<p>(가)는 서로 다른 종인 물고기와 새, 서로 다른 공간인 바다와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관계 맺음의 방식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는 상호 연쇄적인 특징을 갖는다.</p>
<p>③</p>	<p>(나)에서는 이사부와 우륵이 소리와 병장기 사이의 보이지 않는 내적 연관성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다.</p>
<p>④</p>	<p>(다)에서는 암호 체계 내에서 임의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두 소수가 합성수를 고리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p>
<p>⑤</p>	<p>(라)에서는 남자가 명명 행위를 통해 실내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의 명명 행위는 언어공동체의 규약에 반하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방식이라는 특성이 있다.</p>
<p>⑥</p>	<p>요컨대, 사건, 공유한 인식과 가치, 숫자, 언어 등을 매개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방식의 특징은 연속성과 종결성, 자의성과 논리성, 일방향성과 쌍방향성 등이다</p>

3. ‘한계지적 후 보완’ 유형 공략 [중앙대 모범답안을 토대로]	
중앙대는 [문제 2]에서 세 개의 제시문 A, B, C를 출제한다. A는 구체적 상황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다. B는 A의 구체적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근거가 되는 제시문이다. C는 B로써 지적한 A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시문이다. 즉 A에 대해 B로써 한계를 지적하고, C로써 그 한계를 보완하길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앙대식 2번문제라고 할 수 있다. [40점 - 550~570자]	
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8문장]	
①	제시문 'A'의 'D'는 제시문 'B'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서론]
②	'D'는 'E'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론 - 지적1]
③	'D'는 'F'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론 - 지적2]
④	이처럼 'D'는 'E'와 'F'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상화하여 소결론내리기]
⑤	그러나 제시문 'C'에 따르면 'D'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or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서론]
⑥	'D'는 'G'라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or 보완된다. [본론 - 보완1]
⑦	'D'는 'H'라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or 보완된다. [본론 - 보완2]
⑧	이처럼 'D'는 'G'와 'H'라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or 보완된다. [추상화하여 소결론내리기]
※ 햄버거를 통해 알아본 중앙대 2번 문제 전형적 답안 구조	
A	불고기버거가 나오는 제시문
B	새우버거가 나오는 제시문
C	불새버거가 나오는 제시문
D	불고기버거
E	육고기만을 넣어 해산물을 차별한다.
F	데리야끼소스만을 넣어 사람들의 단맛을 자극할 뿐, 타르타르소스가 내는 감칠맛을 무시하고 있다.
G	불새버거를 통해 육고기만을 차별하지 않고 해산물도 패티로 편입시켜 양 쪽의 맛을 다 추구할 수 있다.
H	불새버거를 통해 반은 데리야끼소스, 반은 타르타르소스를 넣어 단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①	제시문 'A'의 '불고기버거'는 제시문 'B'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②	'불고기버거'는 온 국민이 즐기는 패스트푸드에 육고기만을 넣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차별한다는 한계가 있다.
③	또, '불고기버거'는 데리야끼소스만을 넣어 사람들의 단맛을 자극할 뿐, 타르타르소스가 내는 감칠맛을 무시하고 있다.
④	이처럼 '불고기버거'는 해산물의 차별, 맛의 편중 등의 한계가 있다.
⑤	그러나 제시문 'C'에 따르면 '불고기버거'는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⑥	불고기버거는 불새버거를 통해 육고기만을 차별하지 않고 해산물도 패티로 편입시켜 양 쪽의 맛을 다 추구할 수 있다.
⑦	불고기버거는 불새버거를 통해 반은 데리야끼소스, 반은 타르타르소스를 넣어 단 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⑧	이처럼 ‘불고기버거’는 ‘불새버거’의 반반전략을 통해 육고기, 해산물 및 데리야끼, 타르타르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2) TIP	
①	1번 문제보다는 답안 구조의 정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의 답안구조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위의 기본적 답안구조를 외워놓으면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하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외워놓자.
3) 중앙대 모범답안과의 비교	
①	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②	우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④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⑤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사)의 텍스트 암송법은 효용을 가진다.
⑥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⑦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⑧	이처럼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 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

4) 실전연습1 - 2016 모의 인문사회/경제경영	
[문제 2]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다)에 근거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방법론 변천'의 배경을 추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	<p>양적 연구는 기존의 지식을 타당화하거나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량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공식적, 객관적, 체계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적 연구를 지지하는 자들은 연구하려는 대상이 연구자와 별도로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연구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독립적이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동정심을 비교하는 양적 연구를 한다고 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남녀의 동정심의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명확하지만, 동정심은 그렇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동정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동정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제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고 흔히 정의된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갖는 동정심을 관찰하고 측정하기 어렵다. 동정심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는 동정심을 '사람들이 지하도 입구에서 거지 소년에게 돈을 주는 행위'라 정의하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인 지표로 계량화, 객관화하여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양적 연구에서 중요하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마)는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인 지표로 계량화, 객관화하여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일반 법칙을 도출하려는 양적, 실증적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다)	<p>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어느 날 공자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연은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밖을 내다봤는데 마침 안연이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안연은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 수저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연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안연이 밥상을 공자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았다.</p> <p>공자는 조금 전에 안연이 밥을 집어 먹었던 일을 못 본 체하고 누웠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연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네. 밥이 깨끗하다면, 그 어른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싶네."</p> <p>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연</p>

	<p>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연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다. “선생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p> <p>공자는 잠시 안연을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자네들은 꼭 기억해 두길 바라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다)는 공자가 안연을 의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눈과 머리에 대한 맹신을 반성하는 공자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준다.</p>
(바)	<p>안락의자 인류학이라는 용어는 초기 문화인류학자들이 서재에 가만히 앉아서 타 문화 관련 문헌을 읽으면서 연구를 수행하던 방식을 지칭한다. 그들은 여행가, 선교사, 탐험가들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들을 읽었지만, 그러한 장소를 전혀 방문하지 않았고 그곳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험도 없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유럽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고용된 인류학자들은 타 문화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화된 나라들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연구 대상자들 근처에 살긴 했으나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류학자가 원주민들을 면담하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베란다로 오도록 했다는 이유로 베란다 인류학이라 불린다.</p> <p>20세기 초에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서 하나의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참여 관찰의 등장이다. 참여 관찰은 문화 이해의 한 방법으로 특정한 문화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 관찰의 아버지는 브로니슬로 말리노프스키이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남태평양의 트로브리안드 군도에 무려 2년 동안 지역 주민들 근처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현지인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생활했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바)는 사회문화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참여 관찰법을 소개하는데, 참여관찰법이란 국외자로서의 관찰만으로는 다른 이들의 삶과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p>
한계지적 및 보완	
구체적 상황	<p>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인 지표로 계량화, 객관화하여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일반법칙을 도출하려는 양적, 실증적 연구방법.</p>
한계	<p>실증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성, 의식, 가치 등의 정신적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와</p>

	사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에서처럼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이 쉽지 않다.
보완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 혹은 사회 조직과 제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보편적인 인과 법칙을 추구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과 달리, 해석적 연구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강조하며, 주로 참여 관찰이나 면접에 의해 자료를 수집한다.
답안작성 [1문단, 8문장]	
①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는 (다)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②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수치화에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③	또한, 실증적 연구 방법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성, 의식, 가치 등의 정신적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④	이처럼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와 사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과학에서처럼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이 쉽지 않다.
⑤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가 갖는 한계는 (마)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⑥	제시문 (바)는 사회문화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해석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참여 관찰법을 소개하는데, 해석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 혹은 사회 조직과 제도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⑦	보편적인 인과 법칙을 추구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과 달리, 해석적 연구 방법은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강조한다.
⑧	이처럼 실증적 연구 방법이 갖는 문제는 주관적 의미의 발견을 중요시하는 해석적 연구방법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5) 실전연습2 - 2015 인문사회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나눔(또갸)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기술하고,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합적으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p>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종의 총수나 종류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육지의 큰 생물들은 대부분 밝혀졌으나 곤충, 균류, 세균 및 현미경적 크기의 다른 생물들 수백만 종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생물 종수가 약 1천만 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수한 생물 종들을 어떻게 구분할까? 생물 종들 간의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활용하면 종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알 수 있을까? 생물들의 다양성은 엄청나지만, 알려진 모든 종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 모든 생물들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기본 물질로 하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동일한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 생물 종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서 계통을 세워 보면 모든 생물들은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생겨난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공통 조상은 지구상의 생명의 출발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따른 생물 종과 집단 사이의 지속적인 갈래는 생명의 가지치기에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생물들은 기본적 동일성과 상호 관계에 따라 생물 계통수에 배열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생물들은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두 개가 원핵생물이며, 다른 하나가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에는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남세균이나 대장균과 같은 세균, 황세균과 같이 세균과는 여러 면에서 특성이 다르며 화산 지대와 같이 주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세균이 있다. 진핵생물은 단세포 생물(아메바, 짚신벌레 등)과 세 가지 주요 다세포 생물군인 식물, 균류, 동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종류로 아우르면 우리의 생각이 보다 명확해진다. 대상이 속한 종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이 속하지 않은 다른 종류와 구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정 대상의 성격도 한결 구체화되며, 상위에 속하는 것과 하위에 속하는 것이 구분되어 체계가 드러나게 된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라)는 원핵생물, 진핵생물 등의 범주로 생물들을 속성과 종류를 분류하여 상위 종과 하위 종을 구분한다.
(마)	<p>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기보다는 언어에 반영된 주관 세계이다.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분절하고 범주화하여 인식하므로 우리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색깔을 분류하는 말이 일곱 가지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색, 예컨대 녹색과 청색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경계선은 아주 녹색도 아주 청색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모호한 색깔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중간한 색깔을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베리아의 밧사(Bassa)어에서는 무지개 색을 오직 두 가지로만 구별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해 나타나는</p>

	<p>색은 수십, 수백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어에서도 초록색, 청색, 남색을 모두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이 세 가지 색을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색인데도 한 가지 단어를 쓰기 때문이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마)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객관적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상징을 통해 주관적으로 변용된 주관세계라고 말하고 있다.</p>
<p>(바)</p>	<p>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 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 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지만, 우리에게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 준다. 카누를 날라 주고 자식들을 길러 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바)는 가이아적 세계관을 소개하는데,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는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다.
한계지적 및 보완	
구체적 상황	원핵생물, 진핵생물 등의 범주로 생물들을 속성과 종류를 분류하여 상위종과 하위종을 구분.
한계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객관적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상징을 통해 주관적으로 변용된 주관세계인데, 생물을 범주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생물이 가진 고유적 특성을 우리의 언어적 상징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녹색과 청색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듯 세계는 연속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의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종족에의 우상'에 의한 분절적 사고를 초래한다.
보완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는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므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제시문 (라)의 분류가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임을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답안작성 [1문단, 8문장]	
①	제시문 (라)의 '나눔(쪼갠)의 방식'은 (마)에 의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②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객관적 의미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상징을 통해 주관적으로 변용된 주관세계인데, 생물을 범주화하여 분류하는 것은 생물이 가진 고유적 특성을 우리의 언어적 상징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③	녹색과 청색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듯 세계는 연속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의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종족에의 우상'에 의한 분절적 사고를 초래한다.
④	이처럼 (라)의 나눔은 객관적 세계의 훼손과 분절적 사고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바)에 나타난 세계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⑥	전체에도 부분이 있고 부분에도 전체가 있다는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과 만물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명의 그물이다.
⑦	이처럼 인식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제시문 (라)의 분류가 한편으로는 분절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도 사실은 연속적이고 수평적으로 맺어져 있는 하나의 역동적 세계임을 인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⑧	

6) 실전연습3 - 2015 경제경영	
[문제 2]	<p>제시문 (다), (라)의 논지를 각각 고려하여 [2개의 제시문이 나왔으므로 각각 하나의 한계를 제시해야할 것], 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추론해 기술하고,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바)의 논지를 토대로 논술하시오.</p> <p>[40점, 550~570자]</p>
(마)	<p>인간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소비자는 소비할 상품을 까다롭게 선택하며, 재산을 늘리려고 자신의 돈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은 도태되며, 끊임없이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는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는 승진 기회나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경제 주체는 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며, 자신의 효용이나 이윤을 최적화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 이해관계,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즉, 합리적 선택이란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마)는 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를 소개하며, 이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내린다고 말한다.</p>
(다)	<p>총통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젊은 친구, 문명은 고귀함이나 비장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세. 그러한 것은 정치적 비능률을 나타내는 징후일 뿐이야. 우리처럼 적절히 조직된 사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고귀하고 영웅적이 될 기회란 있을 수 없는 걸세. 그러한 계기가 발생하기 전에 여건이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지 모르는 경우이거나 저항해야 할 유혹이 있거나 쟁취하거나 방어할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틀림없이 고귀함과 비장함도 어떤 의미를 가질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엔 전쟁이 없단 말일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일세. 어느 쪽에 충성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건반사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일세.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쾌한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충동은 모두 자유롭게 만족되기 때문에 저항할 유혹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만일 불행한 우연으로 인해 어떤 불쾌한 사태가 일어나면 까짓것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도피시켜 줄 소마가 항상 준비되어 있네. 분노를 진정시키고 적과 화해시키고, 인내하고 수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대단</p>

	<p>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그램짜리 소마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리고 우리는 또 완전한 건강을 위해 V.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어.”</p> <p>“V.P.S라고요”</p> <p>“걱정 대용 약(Violent Passion Surrogate)이란 뜻이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로서 강장제적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p> <p>“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p> <p>“우리는 그렇지 않아.”</p> <p>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p> <p>“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p> <p>“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p> <p>“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p> <p>“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p> <p>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말했다.</p> <p>“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p> <p>“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p> <p>긴 침묵이 흘렀다.</p> <p>야만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p> <p>“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p> <p>무스타파 몬드는 어깨를 추슬렀다.</p> <p>“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가 말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다)는 인간의 걱정을 제어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야만인’을 소개하며 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이 인간다움을 구성하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함을 암시한다.</p>
<p>(라)</p>	<p>스키마(schema)란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또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의 총체를 뜻한다. 예컨대 ‘삼각형’이란 스키마는 세상의 수많은 세모꼴의 형태가 종합된 하나의 규칙이며, ‘개’라는 스키마는 여러 종의 네 발 달린 개라는 동물을 상상할 때마다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것이다. 스키마 이론은 형태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형태 심리학은 당시 행동주의 심리학이 주장하는 ‘인간 심리의 전체적인 특성은 부분들의 특성의 총합’이라는 명제에 반발하여, 사물이나 정신의 모양 또는 형태 등 통일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형태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어도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지향하려는 역동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역동적 성향이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p>

	<p>보편화와 특수화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형태 심리학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중 해석이 가능한 그림을 보여 주고 얼마 후 이 그림을 회상하도록 하였더니, 대부분은 그림에 대해 자신이 처음에 내렸던 판단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변형시켰다고 하였다. 즉 그림을 ‘다리[橋]’로 지각한 사람은 이 그림을 회상할 때 보다 ‘더 다리답게’ 재생하고, ‘성곽’으로 지각한 사람은 보다 ‘더 성곽답게’ 재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스키마가 작용하여, 원래의 시각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기억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키마 이론은 이후 사회 심리학자 버틀렛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는 인간의 기억과 이에 미치는 과거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인들에게 생소한 북미 인디언 설화, <유령들의 전쟁>이라는 글을 영국인 피험자들에게 읽힌 뒤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회상시켰다. 그 결과, 원래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형태로 회상되었고, 선택된 세부 사항들은 회상자의 흥미에 따라 변형되거나 아예 빠지기도 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회상한 이야기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더욱 정교화 되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게 첨가되기도 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총체인 ‘스키마’를 소개하며 인간은 자신의 주변의 일들을 자신의 경험에 일체화시키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의 경험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 작용함을 보여준다.</p>
<p>(바)</p>	<p>[2문단의 구조이므로 보완책은 각 문단에서 1개씩 나올 것]</p> <p>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이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의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전문 사이트들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와 사이트를 고발하고 구매를 거부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토대로 경고를 의미하는 옐로 카드와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발부해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사이트 선정의 길라잡이 역할도 한다. 예컨대 ‘사이버 소비자 센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제반 소비자 문제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대안을 모색하며,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정보넷’은 최적의 상품 선택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p>한편 요즘엔 환경 보호나 저개발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윤리적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같은 두 상품 중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 선택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는</p>

	<p>과정을 고려하고, 건강·환경·사회를 생각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비윤리적 방법이 사용된다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구매를 거부하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녹색 기업,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는 기업,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선택한다. 윤리적 소비자는 이전 소비자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돈을 사용한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상품을 소유하거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투표로 인식한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바)는 인터넷 소비자권리 보호운동과 윤리적 소비를 소개하는데, 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고, 후자는 이윤보다는 상생을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고 윤리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성향이다.</p>
한계지적 및 보완	
구체적 상황	<p>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항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내림.</p>
한계1	<p>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은 인간다움을 구성하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이성만을 강조한 합리적 선택은 인간성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p>
한계2	<p>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인간은 그 개체의 유한성으로 인해 무제한적 경험을 쌓을 수 없기에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p>
보완1	<p>윤리적 소비를 통해 이윤보다는 상생을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고 윤리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인간다운 소비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p>
보완2	<p>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서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다.</p>
답안작성 [1문단, 8문장]	
①	<p>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은 (다)와 (라)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p>
②	<p>인간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은 인간다움을 구성하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이성만을 강조한 합리적 선택은 인간성을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p>
③	<p>개인의 경험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인간은 그 개체의 유한성으로 인해 무제한적 경험을 쌓을 수 없기에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p>
④	<p>(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생략)</p>
⑤	<p>제시문 (마)에서 언급된 '선택'이 가지는 한계는 (바)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p>
⑥	<p>윤리적 소비를 통해 이윤보다는 상생을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고 윤리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인간다운 소비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p>
⑦	<p>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서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합리성을 발휘할 수</p>

	있다.
⑧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생략)

7) 실전연습4 - 2015 모의 인문사회/경제경영

[문제 2]	<p>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학습법’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한계와 효용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p>
(사)	<p>속중 연간에 활약한 저명한 문사 김득신(金得臣)은 글을 한번 읽었다 하면 최소한 천 번을 읽었고, 제법 좋아하는 책이면 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기(史記)” ‘백이전(伯夷傳)’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백이전’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였겠지 치부하고 말았었다. 3천 번을 읽는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1억이라니! 하지만 김득신의 “백곡집(栢谷集)”에서 고문(古文) 36편을 읽고 각기 몇 번을 읽었는지를 밝혀 놓은 ‘고문삼십육수독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를 확인하고서 전에 들은 이야기가 가담항설(街談巷說)에 그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p> <p>이렇게 몇 번을 읽었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암송이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은 눈으로 훑어 읽는 안독(眼讀)이 아니라 울조를 실어 소리 내어 읽는 성독(聲讀)을 하였다. 김득신의 독서는 당연히 성독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은 수효를 계산하는 서산(書算)을 이용하여 독수(讀數)를 헤아렸던 것이다.</p> <p>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양독서법(歐陽讀書法)에서 “글자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효경(孝經)’은 1,903자, ‘논어(論語)’는 11,750자, ‘맹자(孟子)’는 30,685자, ‘주역(周易)’은 24,107자, ‘서전(書傳)’은 25,700자, ‘시전(詩傳)’은 39,234자, ‘예기(禮記)’는 99,010자, ‘주례(周禮)’는 45,806자, ‘춘추좌전(春秋左傳)’은 196,845자였다. 날마다 3백 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라고 하여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字數)까지 일일이 헤아려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수를 계산하였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하였던 시대의 공부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p> <p>사례를 찾아보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세 번이나 필사(筆寫)하였는데 금나라 종실(宗室)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고 한다. 조선의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암송하였고, 송익필(宋翼弼)은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암송하였는데, 조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하였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인류의 저서 가운데 방대함으로 손꼽히는 것들이다. 이런 분들은 비범하기 짝이 없는 분들인데도 저다지 근면하게 공부하였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p> <p>이러한 공부법을 기록으로 남긴 학자가 적지 않지만, 나의 기억으로는, 항해(沆漚) 홍길주(洪吉周)가 “숙수념(孰遂念)” ‘사부송유(四部誦惟)’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사람의 독서법을 소상히 엿볼 수가 있어서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그는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들</p>

	어 보면, “연소한 사람은 경서 전체를 외워야 하고 뽑아 외워서는 안 된다.”이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사)는 경서와 문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암송이라고 하면서 그 경서의 암송을 위하여서는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	<p>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매체 언어 독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글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며 읽을 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가상의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토론할 수도 있다.</p> <p>이와 같이 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과 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독서 환경에 따라 매체 언어 독서를 할 때는 매체의 변화가 정보와 지식의 구성 및 유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를 읽기 위해서는 매체를 다루는 최소한의 기술, 즉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p> <p>이렇듯 특히 글과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체 언어의 독서를 융합적 읽기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영상 매체를 다루는 것은 융합 매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호학적 지식과 그러한 다양한 매체의 처리 방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지적 기능이 요구된다. 오늘날 다매체 사회에서의 독서란 이렇듯 다양하고 복잡한 매체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p> <p>한편, 매체의 발달에 따라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지식을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자 했으며, 한 번 기록된 지식과 정보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식이란 것도 각 사회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지식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식의 양과 종류가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읽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컴퓨터 및 인터넷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마)는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정보들은 글, 그림 그리고 음향적 정보들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 암송을 넘어선 융합적 읽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	음악적 불모지까지의 통로는 어떻게 만드는가. 악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음악적 불모지라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을 얻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p>놀아난다는 말은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통로가 없다는 뜻이다. 이 통로의 개척이 음악적 경험을 위하여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은, 통로의 개척은 반복적 음악 청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동일한 곡을 백 번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천 번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천 번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천 번이라도 들어야 한다. 곡의 진행 과정이 기억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이라는 말이 음악적 경험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된다. 기억되지 않는 대상에는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p> <p>음악은 시간을 타고 흐른다고 한다. 시간 속에서 음들이 여행을 한다고나 할까.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고, 거쳐야 할 지점이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다. 또한 여행 스케줄이 있고 여행의 통로가 있다. ‘곡 진행 과정의 기억’을 강조하는 것은 이 통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 통로를 기억하였다고 해서 여행의 의미를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p> <p>음악은 음악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아나지 않게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연결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통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복적 청취에 의해서 음악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통로가 생기고 나면, 음악적 불모지의 개간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바)에 의하면 음악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 음악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은 반복청취인데,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억은 음악의 이해에 필수적이다.</p>
<p>한계지적 및 보완</p>	
<p>구체적 상황</p>	<p>경서와 문장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은 암송이므로 그 경서의 암송을 위하여서는 반복적인 독서가 필요함.</p>
<p>한계</p>	<p>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p>
<p>보완</p>	<p>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으로 볼 수 있다.</p>
<p>답안작성 [1문단, 8문장]</p>	
<p>①</p>	<p>제시문 (사)의 텍스트 암송을 통한 학습법은 제시문 (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p>
<p>②</p>	<p>우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향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므로 단순 텍스트 암송만으로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p>

③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대의 지식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디지털화된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④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지식 습득의 방식으로서 암송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⑤	그러나 제시문 (바)에 따르면, (사)의 텍스트 암송법은 효용을 가진다.
⑥	반복적 청취를 통해 ‘곡 진행 과정’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이해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복에 의한 기억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⑦	같은 맥락에서, 반복적 독서를 통한 텍스트의 암송은 디지털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지식 습득 방식으로 볼 수 있다.
⑧	이처럼 가변적이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취사선택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능력 못지 않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반복과 기억을 통해 이해하고 체화하는 학습법이 중요하다.

4. ‘요약 후 평가’ 유형 공략 [중앙대 모범답안을 토대로]	
중앙대는 인문사회계열 [문제 3]에서 두 제시문 A와 B를 주고 A를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B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20점, 400~420자]	
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3문장 - 글자 수에 주의할 것.]	
①	제시문 'A'의 요약. [A와 B요약 순서는 크게 상관없음.]
②	제시문 'B'의 요약.
③	'A'를 통해 'B'를 'C'와 'D'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며 결론을 내림.
※ 햄버거를 통해 알아본 중앙대 3번 문제 전형적 답안 구조	
A	새우버거가 나오는 제시문
B	불고기버거가 나오는 제시문
C	육고기만을 넣어 해산물을 차별한다.
D	데리야끼소스만을 넣어 사람들의 단맛을 자극할 뿐, 타르타르소스가 내는 감칠맛을 무시하고 있다.
①	제시문 'A'는 누구나 쉽게 패스트푸드점에서 즐길 수 있는 불고기버거를 소개하는데, 불고기 버거는 육고기와 데리야끼소스로서 우리 고유의 음식인 불고기의 맛을 재현한 햄버거의 일종이다.
②	제시문 'B' 또한 햄버거의 일종인 새우버거를 소개하는데 새우버거는 기존의 햄버거가 육고기를 패티로 넣어온 것과 달리 해산물인 새우로서 패티를 만듦으로써 바다의 맛을 더하고 타르타르소스까지 첨가하여 감칠맛을 더한다.
③	따라서 'A'의 불고기 버거는 한국의 전통적 맛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육고기만을 패티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없도록 하며, 데리야끼 소스로 일관하여 타르타르의 소스의 감칠맛에 비해 그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2) TIP	
①	인문사회계열 [문제 3]은 배점이 20점밖에 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문단 3문장의 구조를 외워놓고 빨리 써버리자!
3) 중앙대 모범답안과의 비교	
①	제시문 (아)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②	한편 제시문 (라)의 영웅이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따라서 영웅 형성 메커니즘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제시문 (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가공했을 때, 대중을 조종하는 중우정치의 기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

4) 실전연습1 - 2016 모의 인문사회

<p>[문제 3]</p>	<p>제시문 (사)에 나타난 윤 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제시문(가)에 근거하여 비판하시오. [20점, 400~420자]</p>
<p>(사)</p>	<p>윤 직원 영감(그때 당시는 두꺼비같이 생겼대서 윤 두꺼비로 불려지던 윤 두섭) 그는 어려서부터 취리에 눈이 밝았고, 약관에는 벌써 그의 선친을 도와 가며 그 큰 살림을 곧잘 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03년 계묘년부터는 고스란히 물려받은 삼천 석 거리를 가지고, 이래 삼십여 년 동안 착실히 가산을 늘려 왔습니다.</p> <p>하기야 그 양대(兩代)가, 그 어둔 시절에 것처럼 처산을 하느라고[시절이 어두우니까 체계변이며 장리변의 이문이 솟지고, 또 공문서(空文書:공토지)가 수두룩해서 가산 늘리기가 좋았던 한편으로 말입니다.] 욕심 사나운 수령한테 걸려들어 명색 없이 잡혀 갇혀서는, 형장을 맞아 가며 토색질을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화적의 총부리 앞에 목숨을 내걸고 서서 재물을 약탈당하기도 부지기수요, 그러다가 말대가리 윤용규는 마침내 한 패의 화적의 손에 비명의 죽음까지 한 것인즉슨, 일변 생각하면 피로 낙관을 친 치산이지, 녹록한 재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p> <p>윤 직원 영감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방도 가슴이 뭉클하고, 그의 선친이 무참히 죽어 넘어진 시체하며, 곡식이 들이쌓인 노적과 곳간이 불에 활활 타던 광경이 눈앞에 선연히 밟히곤 합니다.</p> <p>윤 두꺼비는 피에 물들어 참혹히 죽어 넘어진 부친의 시체를 안고 땅을 치면서, “이놈의 세상이 어느 날에 망하려느냐!” 고 통곡을 했습니다.</p> <p>그리고 울음을 진정하고는, 불끈 일어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또한 웅장한 절규이었습니다. 아울러, 위대한 선언이었고요.</p> <p>윤 직원 영감이 젊은 윤 두꺼비 적에 겪던 경난의 한 토막이 대개 그러했습니다.</p> <p>그러니, 그러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 모아 마침내는 피까지 적신 재물이니, 그런 일을 생각해서라도 오늘날 윤 직원 영감이 단 한 푼을 쓰재도 벌벌 떠는 것도 일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p> <p>돈을 모으는 데 무얼 어떻게 해서 모았다는 거야 윤 직원 영감으로는 상관할 바 아닙니다. 사실 착취라는 문자를 가져다가 붙이려고 하면, 윤 직원 영감은 거 웬 소리냐고 훌훌 뽕 겹니다.</p> <p>다아 참, 내가 부지런하고 또 시운이 뻗쳐서 부자가 되었지, 작인이며, 체계돈 쓴 사람이며, 장릿벼 얻어다 먹은 사람이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서 말입니다.</p> <p>바스티유 함락과는 항렬이 스스로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윤 직원 영감은 것처럼 육친의 피로써 물들인 재산 더미 위에 올라앉아 옛날 그다지도</p>

	<p>수난 많던 시절과는 판판이요, 도무지 태평한 이 시절을 생각하면, 안심되고 만족한 웃음이 절로 솟아날 때가 많습니다.</p> <p>“참 장헌 노릇이여!..... 아 이 사람아 글썄, 시방 세상의 누가 무엇이 그리 답답히어서 그 노릇을 허구있겼녕가.....? 자아 보소. 관리허며 순사를 우리 죄선으루 많이 내보내서, 그 송악헌 부랑당놈들을 말끔 소탕시켜 주구, 그래서 양민덜이 그 덕에 편히 살지를 앓녕가? 그러구 또, 이번에 그런 전쟁을 히어서 그 못된 놈의 사회주의를 막어내주니, 원 그렇게 고맙구 그렇게 장헌 디가 어디 있담 말잉가..... 어 참, 끄찍이두 고맙구 장헌 노릇이네!..... 게 여보소, 이번 쌈에 일본은 갈디없이 이기기년 이기렛대잉”하고 윤 직원이 묻습니다.</p> <p>“그야 여부 없쥬! 일본이 이기구말구요!”</p> <p>“그럴 것이네 워니니, 일본이 부국쟁병허기루 천하제일이라네티..... 어 참, 속이 다 후련허다.”</p> <p>(종략)</p> <p>“.....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p> <p>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p> <p>“화적패가 있너냐아? 부랑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히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사)의 윤 직원 영감은 화적의 침입으로 부친이 죽고 노적이 불타는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원한이 생겼는데, 이 원한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봉쇄하여 자기 재산만 지켜 준다면, 윤리고 도덕이고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이어지게 되어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부르는 윤리의식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p>
<p>(가)</p>	<p>인간의 감각적 경험은 지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순수한 감각적 경험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 한 권 읽지 못한 문맹자라 해도 그 경험적 영역이 순수하게 남아 있지 않고, 사회의 지배적 통념이 경험을 규정하게 된다. 감각적 경험이 지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그 감각적 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p> <p>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구경했다고 하자. 그는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의 위용을 눈으로 확인했으며, 그것을 보면서 중국인들 특유의 큰 스케일과 중국 문명의 위대함에 새삼 놀랐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떤 역사책을 통해 만리장성이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을 죽여가며 만들어진 슬픈 역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지적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 역사 인식은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였던 만리장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는 이</p>

	제 만리장성을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야만의 산물에 가깝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경험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새롭게 규정된다.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면 과거의 경험은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한 문장 요약	제시문 (가)는 순수한 의미의 감각적 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적 경험이 이를 보완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답안작성 [1문단, 3문장]	
①	제시문 (사)의 윤 직원 영감은 화적의 침입으로 부친이 죽고 노적이 불타는 상황에서 사회에 대한 원한이 생겼는데, 이 원한은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봉쇄하여 자기 재산만 지켜 준다면, 윤리도 도덕이고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이어지게 되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부르는 윤리의식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
②	제시문 (가)는 순수한 의미의 감각적 경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지적 경험이 이를 보완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따라서 윤직원 영감은 완벽하지 않은 감각적 경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지니게 된 인물로 일제강점기가 우리민족에게 얼마나 크나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5) 실전연습2 - 2015 인문사회

<p>[문제 3]</p>	<p>제시문 (사)의 왼쪽은 신문 광고이고 오른쪽은 시 작품이다. 이 시에 사용된 창작 방식과 그 창작 방식이 만들어 낸 효과를 제시문 (아)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0점, 400~420자]</p>	
<p>(사)</p>		<p>‘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829-1551</p> <p>‘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p> <p>‘조순혜’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p> <p>나는 쭉그리고 앉아 똥을 논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사)는 사람을 찾는 신문광고를 바탕으로 지은 시를 소개하는데, 이 시는 대부분 신문광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시로서 변형했지만 마지막 연에서 ‘나는 쭉그리고 앉아 똥을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신문광고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p>	
<p>(아)</p>	<p>일반적으로 시를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 속에 특별한 말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일상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의 언어는 바로 일상의 언어로부터 출발한다. 문학은 경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고 재창조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신문 기사나 보고서, 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들과 다르다. 문학은 일상에 감춰 있는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여 경험 세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면하게 한다. 문학 작품의 비판적·창조적 재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시어나 소재, 주제를 바꾸면 새로운 작품이 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소설을 시로 재구성하거나,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는 재구성할 형식이 가진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한다. 형식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 스크랩, 극장의 포스터, 광고 메시지, 금전 출납부, 동상의 받침대에 새긴 문안 따위를 작품 속에 옮겨 재배치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재구성된 재료들은 문</p>	

	<p>학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p> <p>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흔히 내용만 따라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여러 가지 미적인 형식이 감춰져 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독자는 작품의 내용 속에 감추어진 섬세한 미적인 형식을 발견해냄으로써 보다 높은 미적 성취를 얻게 된다.</p>
한 문장 요약	(아)는 시가 우리의 생각만큼 쓰기 어려운 문학작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상의 경험에 작가의 감수성과 시의 형식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시라고 주장한다.
답안작성 [1문단, 3문장]	
①	제시문 (사)는 사람을 찾는 신문광고를 바탕으로 지은 시를 소개하는데, 이 시는 대부분 신문광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시로서 변형했지만 마지막 연에서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본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신문광고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②	(아)는 시가 우리의 생각만큼 쓰기 어려운 문학작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상의 경험에 작가의 감수성과 시의 형식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시라고 주장한다.
③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의 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문 기사라는 소재에 현대인들의 무관심에 대한 조소라는 작가의 감수성을 시의 형식을 취하여 적절히 섞어놓은 결과물로 미적 성취를 얻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6) 실전연습3 - 2015 인문사회	
[문제 3]	<p>제시문 (아)의 논지를 고려하여, 제시문 (라)에 나타난 ‘영웅 만들기 메커니즘’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p> <p>[20점, 400~420자]</p>
(아)	<p>도편 추방제란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민회에서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내게 한 다음, 6,000표 이상 받은 자를 10년 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편 추방제는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도편 추방제는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로서 일반 시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들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추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중우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아테네를 제일의 해운국으로 만들고 직접 함대를 지휘하여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하기도 했던 테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제에 의해 추방된 대표적인 희생자였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아)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p>
(라)	<p>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신비화되고 통속화되는가, 영웅에 대한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떤 변천을 겪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더 사실에 가까운 영웅’의 모습에 다가서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영웅을 둘러싼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국민 정체성 형성에 그들이 간여한 바를 추적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을 만들고 그들의 초상을 새롭게 덧칠해 온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욕망을 읽어 내어 그 시대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획득한다.</p> <p>무릇 영웅이란 죽고 나서 한층 더 길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사후 인생이 펼쳐지는 무대는 바로 후대인들의 변화무쌍한 기억이다. 잔 다르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신비와 경건을 가장한 바보 처녀’로 치부되었지만, 프랑스 혁명기와 나폴레옹 집권기에 와서는 애국의 화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그 숭배의 열기가 더 달아올라, 19세기 공화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잔을 ‘프랑스의 수호자’이자 ‘민중의 딸’로 재창조했다. 국경을 넘어 20세기 여성참정권자들에게 잔은 ‘전투적 페미니즘’의 상징이었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유관순 열사’로 기억되었다.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의 기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틀 내에서 형성되며,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기억의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p> <p>근대 역사에서 기억이 구성되고 가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족’이</p>

	<p>었다. 근대 역사학 자체의 탄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영웅은 중요한 기억의 터전을 차지해 왔다. 이때 영웅은 그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영광과 상처를 상징하는 육화된 기호로서 구성원에게 동일시할 대상으로 나타난다.</p> <p>이때 영웅은 종종 ‘애국’의 덕목과 결부되었다. 한국에서도 봉건 시대에 충군의 이념에 충신했던 인물이 구국의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근대의 영웅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묶어 주는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영웅은 구성원 모두를 상하, 수평 관계 속에서 매개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미디어였다.</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라)의 영웅이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답안작성 [1문단, 3문장]</p>	
<p>①</p>	<p>제시문 (아)는 참주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도편 추방제가 직접 민주 정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정자에 의해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중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심지어 영웅마저도 사회로부터 추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p>
<p>②</p>	<p>한편 제시문 (라)의 영웅이 사회적 틀 속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선택된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대중이 동일시할 대상으로 수용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영웅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③</p>	<p>따라서 영웅 형성 메커니즘은 국민통합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제시문 (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영웅 이미지를 조작·가공했을 때, 대중을 조종하는 중우정치의 기제로 전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하다.</p>